

PORTFOLIO

C h o i W o n g y u

<https://unfamiliarbt.wixsite.com/monsieurchoi>

Artist statement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 - 삶은 어떻게 기억될 수 있는가

작가는 지금 이 사회에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분명히 존재하나 망각되어진- 다양한 삶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며, 수집하고 기록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이야기들을 토대로 내러티브를 창작하고, 시각화 하여 동시대 사람들에게 창작의 과정과 결과물을 공유하는 것으로 수 없이 많은 개인의 역사를 기억하고, 삶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작업을 진행한다. 작업은 주변의 삶을 리서치 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그러한 삶의 과정에서 수집된 부산물들을 재료화 하여 설치작업에 적용하여 작가의 세계관을 투영한 심상적인 풍경을 창작함과 동시에 리서치의 과정에서 기록된 영상과 사진 또한 작업으로 남겨 예술 행위, 그 과정에서의 작가의 정신적 육체적 노동의 과정을 공유한다. 부산물을 통해 선별된 재료들은 그 상징성을 평면작업에도 적용되어 내러티브를 확장한다.

작업 세계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대중과의 소통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 하고자 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주체들이 포함되어 있는 현재성, 그리고 그 주체들이 만들어가는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시의성을 가진, 삶의 바닥에 안착되어 있는 작업으로 풀어 나감으로서 예술가로서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끊임 없는 사고와 실천을 반복하며 작가로서의 존재에 대해서 확인해 나가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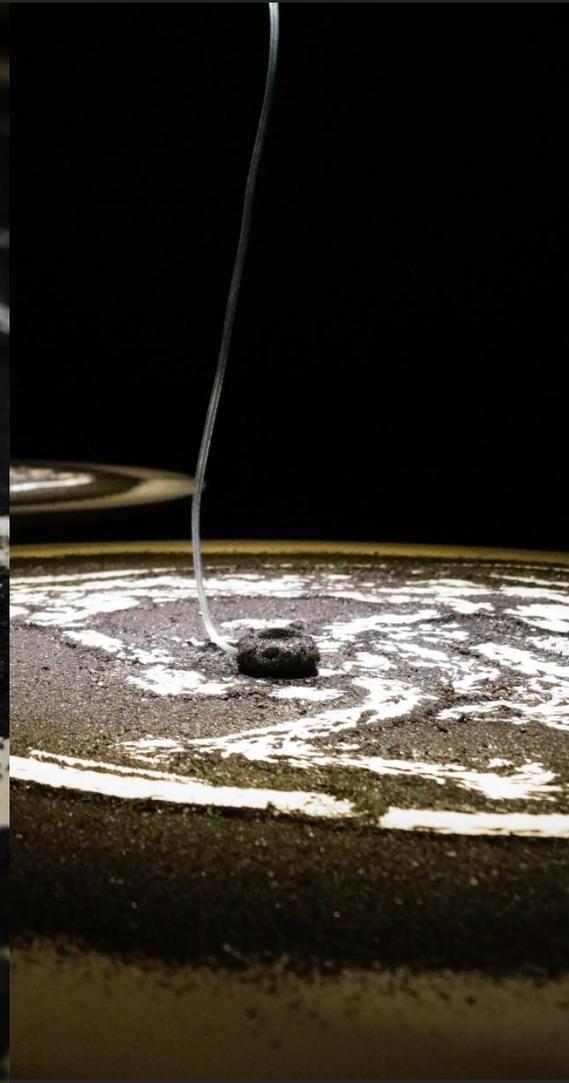
Light hrer, light now - 2021 (망각의 투영) - 2021 / 수집된 거울, 이야기, 프로젝션 / 가변설치

뉴균가의 현재를 비추었던 프레임은 각자의 이야기를 반사하며 공간을 채운다. 매 순간 내쉬고 들이 쉬는 숨 처럼 신체에 닿은 이야기들은 잊혀진 채 존재의 시그널을 깜빡인다.





Breath-Lifescape III - 2021 (숨-삶,풍경 III) - 2021 / 선박단지에서 수합한 철가루, 네오디움, 진동모터, 모션센서, 나무패널, 스틸파이프
산업단지에서 수합한 철가루는 삶의 상징이자 그것을 반하게 하는 여러 요건들을 상징한다. 자력의 한계까지 철가루를 끌어 안고 쉼 없이 진동하며 이동하는 구동체는
각자의 운동을 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과 닮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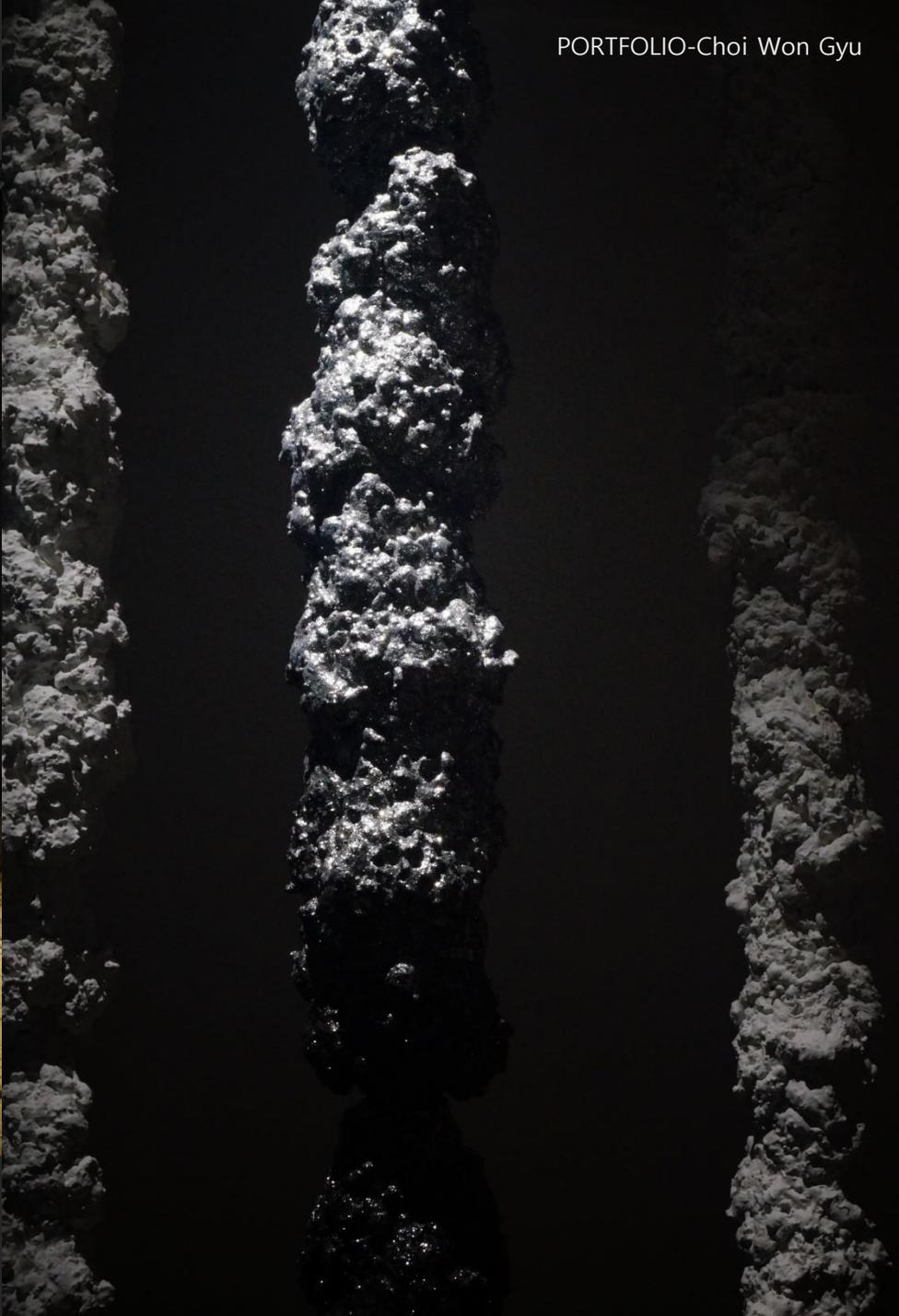




Breath-The forest of oblivion (숨-망각의 숲)-2020 / 선박단지에서 수합한 철과 아연가루, 우레탄 폼, 석고, 안료, 철거된 공장터에서 수합한 흙 금속 가공 공장의 심 없는 노동으로 바닥에 떨어지는 철가루 들을 수합하고 걸러내어 순수한 철가루 만을 입체물의 외피로 구성 함으로서 망각되고 그 주체마저 가치 없다고 치부 해버리기도 하는 삶의 가치를 기억하고 다시금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두터운 바닥을 뚫고 상승할수록 점차 반짝이는 이 숨들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자 그들의 반짝이는 삶에 바치는 작가의 헌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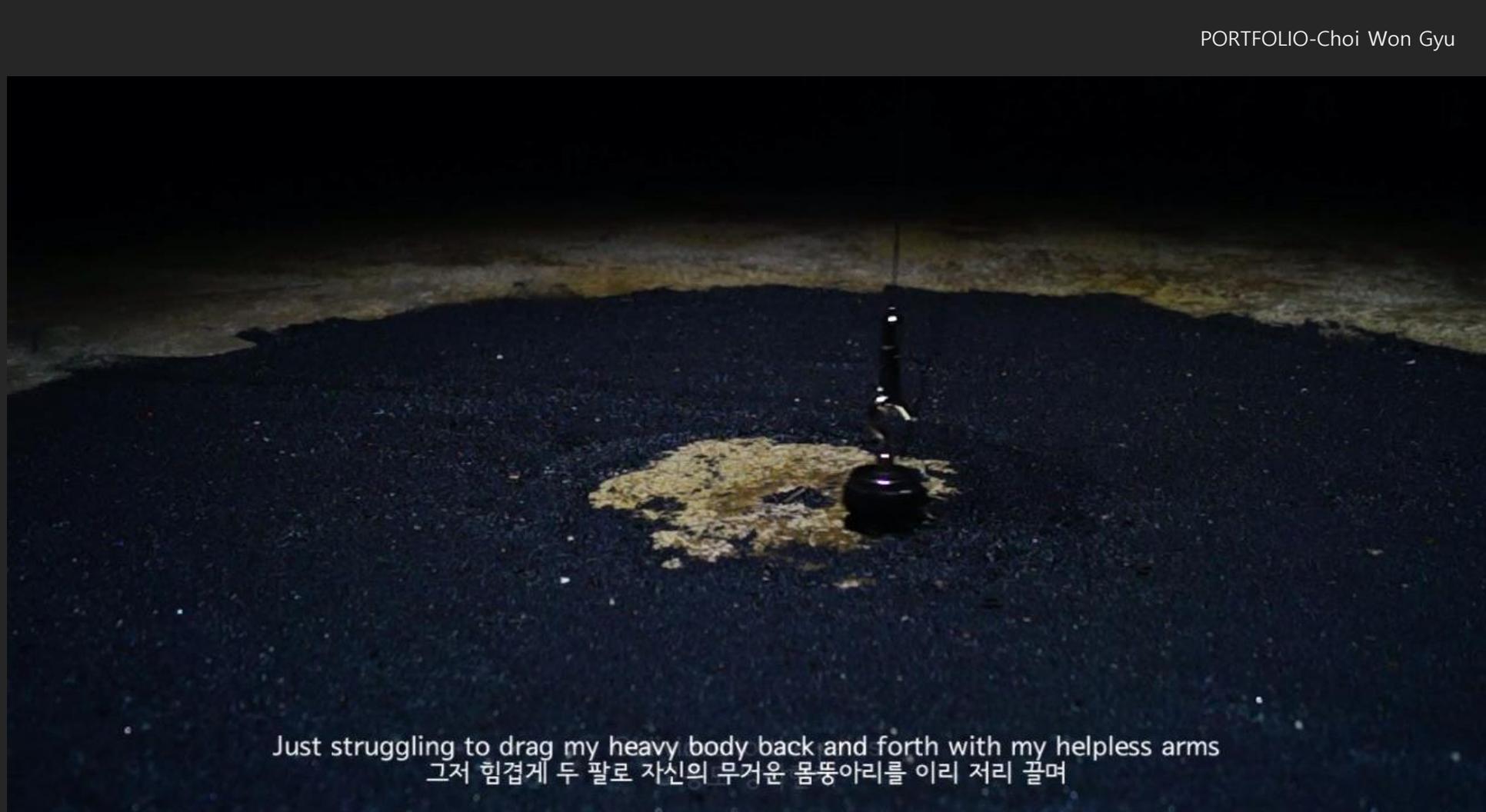




Oblivion, Imprinted (망각의 각인) – 2021~(진행중-대구예술발전소 리서치 프로젝트) / 생활공간에서 수합한 바닥재, 이야기



Breath-Lifescape (숨-삶, 풍경 II)-2020 / 선박산업단지에서 수합한 철가루, 우드 패널, 네오디움자석, 모터구동장치 / 가변설치
운동을 지속하는 자석은 자신의 자력의 한계치까지 들러 붙은 철가루들을 이리 저리 끌며 패널에 이미지를 기록한다.
"그녀는 단지 살고자했다" 영상 링크 <https://youtu.be/jxrlEXoLhF0>



Just struggling to drag my heavy body back and forth with my helpless arms
그저 힘겹게 두 팔로 자신의 무거운 몸뚱아리를 이리 저리 끌며

Breath-Lifescape (숨-삶, 풍경 II)-2020 / 3채널 비디오 3분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세 가지 형태의 네오디움의 반복적인 운동과 글로 창작된 영상작품.

영상 링크 – 1. "She just wanted to live" <https://youtu.be/jxrlEXoLhf0>

2. "He lives on" https://youtu.be/n_zkg77iIQ4

3. "He still live in anxiety" <https://youtu.be/saQHOHJyzm8>



Breath-Lifescape (숨-삶, 풍경)-2020 / 린넨. 선박산업단지에서 수합한 철가루와 미디엄 / 31X31cm – 50pcs
 작가의 왼손은 캔버스를 회전시키고 동시에 붓을 쥔 오른손은 끊임 없이 상하운동을 반복하며 이미지를 만듭니다.
 “무심하게 돌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오늘 내가 만든 이미지는 오롯이 나의 것인가? 나의 의지만으로 서있는 자리인가?”





Breath-Lifescape (숨-삶, 풍경)-2020 / 린넨. 선박산업단지에서 수합한 철가루와 미디엄 / 31X31cm – 50pcs
작가의 왼손은 캔버스를 회전시키고 동시에 붓을 쥘 오른손은 끊임 없이 상하운동을 반복하며 이미지를 만듭니다.
“무심하게 돌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오늘 내가 만든 이미지는 오롯이 나의 것인가? 나의 의지만으로 서있는 자리인가?”



영상 링크

https://youtu.be/tG_wmFfPN8



야외설치 1회차 설치 이미지

Breath-The way back (숨-귀환)-2020 / 선박단지에서 수합한 철과 아연가루, 우레탄 폼, 석고, 안료

2020년 8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숨 - 귀환)은 대중과 삶의 현장에서 만나고 작품의 의미를 공유하며, 예술 경험으로부터 소외된 시민들에게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진행하고있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야외설치 2회차 이미지

야외 설치는 총 2회 진행 되었으며, 1회차(서부산 산업단지내 공원 / 설치기간-25일)와 2회차(서부산 감천문화마을 내 사유지 / 설치기간-60일) 로 공공장소에서 공개되었다.



프로젝트 영상 링크

<https://youtu.be/YpuZu4V1fyk>



Breath – The wave of oblivion (숨 – 망각의 파도) / 퍼포먼스, 단채널 비디오 30분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존재에 대한 각인의 노력을 퍼포먼스와 영상 기록으로 이야기하려는 프로젝트로 작가 본인의 행위와 시민의 참여로 이루어진 작업.



FLOW-The mind gap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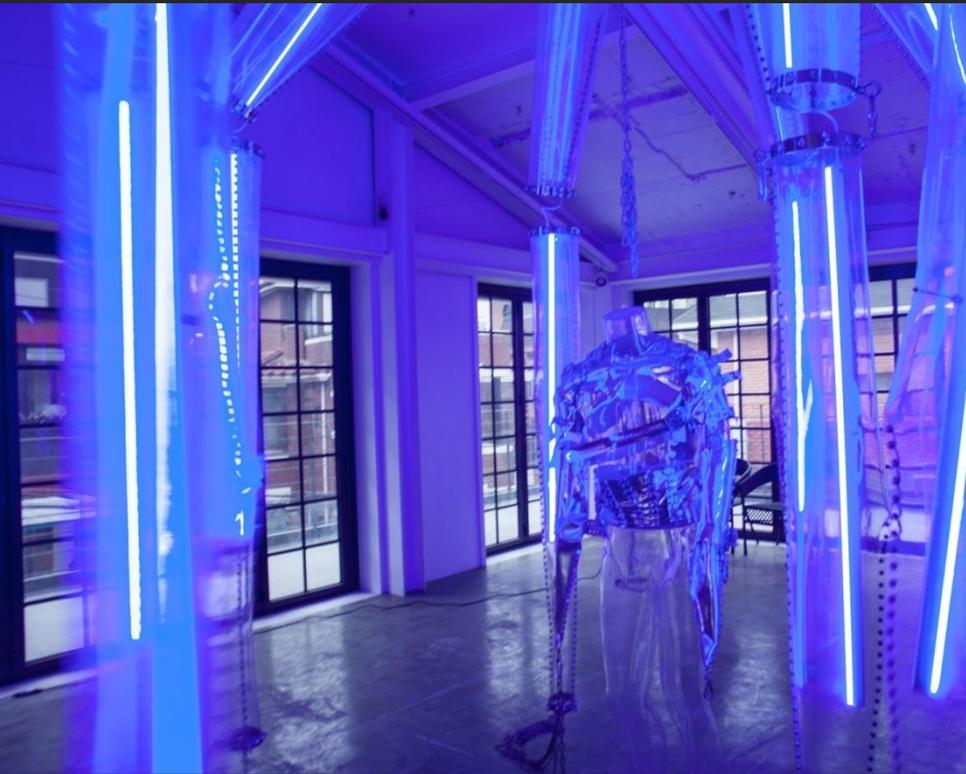
전시 전경 - 수창청춘맨숀, 대구

철거된 집터에서 수합한 기둥과 보, 우레탄 폼, 아크릴 / Installation area 7.5m X 7m H = 5m(max)

철거된 집터에서 공간을 구성하고 있던 구조체를 수합하여 새로운 공간 개념을 만들고, 그 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가두어졌던 감정들을 형상화하여 설치한 작업.







Bitter sweet symphony 2019

220cm X 220cm X 340cm

폴리프로틸렌, 스테인레스, 모터 구동장치, 와이어

“ 갈 곳을 잃은 나는 바닥에 닿지 못한 채 그저 허우적거린다...”

어디에든 갈 수 있지만 너에게만 닿지 못한다

-작가노트 중에서





The last petal on furrys back - 2018
레진에 아크릴 스프레이, 파이프, 인조 퍼, 스티로폼
240cm X 90cm X 230cm

“ ...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남은 마지막 꽃잎 하나를 지고 하염없이 간다...”

작가 노트 중에서



All the lovers - 2018

Spray on resin / Acrylic panel / LED light

180cm X 130cm X 120cm

작가는 감정의 형상을 창조해내었다. 온통 털로 뒤덮여 표정과 제스처를 가늠할 수 없는
형상의 "Furry" 들은 서로 바라보거나 혹은 서로 바라보는 타자들을 멀리서 바라만보고 있는 듯한 배치로 사랑의 여러
형태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Isoland 2018

레진, 아크릴 스프레이, 스테인레스 패널 / 450cm X 380cm X 60cm

자기만의 섬에 갇혀 그저 하염 없이 바라만본다
우리는 각자 떠나니는 섬이다